



광주 남구청 이승윤 '2관왕 명중'

회장기 전국대학·실업 양궁대회 전날 90m 이어 50m서도 우승 팀 창단 이후 첫 금메달 선사

광주 남구청 이승윤(사진)이 전국대회 2관왕을 차지했다. 이승윤은 팀 창단 이래 첫 금메달을 따낸데 이어 하룻 만에 금메달과 동메달을 추가했다. 이승윤은 17일 예천전호국제양궁장에서 열린 올림픽제패기념 제38회 회장기 전국 대학·실업 양궁대회 남자일반부 90m 경기에서 350점을 쏘아 2위 이호빈(국군체육부대·347점), 3위 한재열(현대제철·346점)을 제치고 값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다. 전날 90m에서 326점을 기록하며 소속팀에 창단 첫 금메달을 선사한 이승윤은 대회 2관왕에 올랐다.

이승윤은 전날 같은 대회 남자일반부 90m 경기에서 326점을 쏘아 2위 김현중(국군체육부대·318점), 3위 이우석(코오롱엑스텐보이즈·316점)을 큰 점수 차로 따돌리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승윤은 17일 30m에서도 357점의 기록으로 공동 1위 이호빈(국군체육부대·358점), 최건태(코오롱엑스텐보이즈·358점)에 이어 김현중(국군체육부대), 진재왕(두산중공업), 정태영(두산중공업)과 함께 공동 3위를 차지하며 동메달을 추가했다. 90m, 70m, 50m, 30m 거리별 기록 합산(1346점)으로 개인전 예선을 1위로 통과한 이승윤

은 18일 올림픽라운드로 치러지는 개인전, 기보배(광주시청)와 팀을 이룬 혼성전에 출전해 메달 사냥을 이어간다.

이현창 남구청 감독은 "에이스 이승윤의 선전이 팀에 '우리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불어넣은 것 같다. 어느 팀보다 끈끈한 동료애가 우리 팀의 장점인 더 강한 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대회 성적이 만족하지 않고 다음 달 광주에서 열리는 대통령기대회에서는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훈련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자일반부에서는 광주시청 최민선이 30m에서 357점을 쏘아 1위 김수린(현대비스·358점)에 이어 이은경(순천시청), 이기현(대전시체육회), 성혜경(대구서구청)과 공동 2위를 기록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NBA 사상 최초 여성감독 나오나

뉴올리언스 건디 감독 교체 웨더스푼 코치, 승격 가능성

미국프로농구(NBA) 사상 최초의 여성 감독이 등장할 것인가. NBA 뉴올리언스 펠리컨스는 17일 "스벤 댄디(62·미국) 감독과 상호합의로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2020-2021시즌을 앞두고 뉴올리언스 지휘봉을 잡은 댄디 감독은 한 시즌만 치르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미국 야후스포츠는 뉴올리언스의 새 감독 후보로 LA 레이커스의 제이슨 키드 코치, 자크 본 브루클린 네츠 코치 등을 거론하며 테리사 웨더스푼(56·미국) 뉴올리언스 코치가 감독으로 승격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웨더스푼 코치는 미국여자프로농구(WNBA) 뉴욕 리버티, LA 스파르칸스 등에서 선수로 뛰었고 1988년 서울올림픽 금메달리스트다. 2019년 네이스미스 메모리얼 농구 명예의 전당에 오른 웨더스푼 코치는 2008년부터 모교인 루이지애나 공대 감독을 역임했고 2019년부터 NBA 뉴올리언스 코칭스태프에 합류했다.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베키 해먼(44·미국) 코치도 NBA 여성 감독 1호 후보로 꾸준히 거론되는 인물이다. 해먼 코치는 2018년 밀워키 벅스, 지난해 인디애나 페이스러스 감독 후보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시즌 기간에는 포틀랜드 트레일블레이저스, 올랜도 매직의 차기 사령탑 물망에도 올라 있다. NBA에서 아직 여성 감독은 나온 적이 없으며 다만 해먼 코치가 2015년과 2016년, 2019년에 샌안토니오의 서머리그 경기에 감독을 맡은 바 있다. /연합뉴스



활처럼 휘어지며 골밑슛 17일 미국 유타주 스포츠레이크 시티에서 열린 NBA 서부 컨퍼런스 플레이오프 2라운드 5차전 유타 재즈와 LA 클리퍼스의 경기에서 LA 클리퍼스의 가드 폴 조지(왼쪽)가 상대 수비를 뚫고 골밑슛을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장애인들 파크골프 잔치 열렸네

시장장애인체육회 교류전 시작 7개 동호인클럽 80여명 참가

광주시장애인체육회가 17일 염주파크골프장에서 '2021 광주시파크골프 동호인클럽 교류전'을 시작했다. <사진> 교류전은 파크골프의 이미지 향상과 저변확대, 각 클럽간 유대관계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광주 지역 7개 장애인파크골프클럽 동호인 8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17일부터 연말까지 매일 셋째주 목요일 총 6차에 걸쳐 이뤄지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짝을 이

뤼 3인1조 단체전을 진행한다. 교류전은 2021년 대한장애인체육회 공모사업에서 '공공스포츠클럽', '동호인클럽 교류전' 2개 사업에 선정돼 예산 1200만원을 지원받아 열린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복권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후원한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서용규 수석부회장은 "교류전에 출전한 7개 클럽 80여명의 파크골프 동호인들에게 환영의 인사를 전하며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교류전을 통해 정기적인 상호 교류와 실력향상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전라남도체육회 법정법인 출범식



전남도체육회 법정법인 출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으로 인한 특수법인 설립을 마친 전남도체육회가 17일 출범식을 새롭게 출발했다. 전남도체육회는 이날 전남체육회관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한중 전남도의회 의장, 장석우 전남도교육감 등 유관기관과 전남체육인이 참석한 가운데 법정 법인 출범식을 열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페더러, 예전같지 않네

1년 재활 후 복귀...ATP 노벤티오펜 16강서 탈락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8위·스위스·사진)가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노벤티오펜(총상금 131만80605 유로) 단식 2회전에서 탈락했다. 페더러는 16일(현지시간) 독일 할레에서 열린 대회 사흘째 단식 16강전에서 펠릭스 오제알리아

심(21위·캐나다)에게 1-2(6-4 3-6 2-6)로 역전패했다. 28일 개막하는 시즌 세 번째 메이저 대회 Wimbledon을 앞두고 올해 첫 잔디 코트 대회에 나온 페더러는 2회전 탈락으로 Wimbledon 전장을 어렵게 했다. 페더러는 클레이코트 대회였던 이달 초 프랑스 오픈에서는 16강에 진출했으나 16강전을 앞두고 "두 차례 무릎 수술을 받고, 1년 넘게 재활했기 때문에 몸 상태 회복이 빠르지 않다"며 기권했다. 1981년생으로 올해 40세인 페더러는 2020년 1월 호주오픈 4강에 오른 뒤 두 차례 무릎 수술을 받고 1년이 더 지난 올해 3월야야 코트에 복귀했다. 페더러가 잔디 코트 대회에 출전한 것은 2019년 7월 윌빙던 이후 이번 대회가 약 2년 만이다. 이날 페더러를 꺾은 오제알리아는 2000년생 8월 8일생으로 페더러와 생일이 같으면서 19살 어린 선수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컨저링3: 악마가 시켰다
2관	파이아트 플레이스 2
3관	크루엘라
4관	루카
5관	여고괴담 여섯번째 이야기: 모교
6관	파이아트 플레이스 2
9관	컨저링3: 악마가 시켰다
7관 씨네커튼	파이아트 플레이스 2, 루카, 클라이밍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
8관 씨네커튼	루카, 여고괴담 여섯번째 이야기: 모교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 캐시트릭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가치회관연 포커스 토니 윤 피아노 리사이틀 일시 : 2021. 06. 26.(토) 19:3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3	2021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뮤지컬 <캐터필러의 유령> 일시 : 2021.07.10.(토)-11.(일) 19:30, 15:0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7
---	--